



‘기획자 송은이’ 예능계 ‘판’ 흔들다

팟캐스트·김생민 영수증 등 기획...‘셀럽파이브’ 결성 인기몰이 뷰비 150만 뷰 “출연 요청 쇄도에도 스케줄 조정 어려워 못해”

예능계에서 송은이(45)가 ‘키맨’으로 떠올랐다. ‘기획자 송은이’의 숨은 파워와 재기가 주목받고 있다.

발화가 된 지점은 ‘김생민의 영수증’이었고 기름을 끼얹은 것은 최근 선보인 프로젝트 그룹 ‘셀럽파이브’다. 서서히, 꾸준히 예열되던 송은이의 기획력이 마침내 끓는점을 넘어서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연예계는 ‘기획자 송은이’가 사그라들었던 여성 예능인 바람을 다시 지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그에게 쏠린 관심이 더 큰 크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자력갱생 송은이, 기획자로 성공하다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밝혀 연예계에 데뷔한 송은이는 20년간 스케줄 바쁜 여성 예능인이었다. 하지만 2012년 ‘무한걸스’를 끝으로 예능인으로서 그가 설 무대는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어갔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예능인으로서의 끼를 보여줄 여지는 없었다.

그렇게 잊혀지다가 했지만 송은이는 스스로 판을 벌였다. 선택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력갱생 판을 벌였다. 2015년 4월 김숙과 함께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을 시작했고, 2016년 2월에는 유튜브에 ‘비보TV’ 채널을 만들었다.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이 뽑은 ‘2017년 가장 인기가 좋았던 팟캐스트’에서 3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생민의 영수증’이다.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한 코너이니, 지난해 팟캐스트를 휩쓴 2, 3위 프로그램이 모두 송은이의 손에서 나온 셈이다. 게다가 ‘김생민의 영수증’은 팟캐스트 인기를 바탕으로 KBS 2TV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상파에 입성해서도 인기를 끌면서 김생민을 데뷔 25년 만에 스타로 만들었다.

송은이가 세운 콘텐츠 제작회사 ‘컨텐츠랩 비보’에는

현재 정직원 10명이다.

송은이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7일 “송은이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직원 10명이 있는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수입이 안정적이다”고 밝혔다.

팟캐스트에서는 청취자와 인생살이 고민을 재치있게 나누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예능인으로서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송은이는 이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알아서’ 찾아오는 광고로 수입을 낸다. 명실상부 기획자로 성공했다.

◇ ‘셀럽파이브’ 바람몰이 어디까지?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일 ‘비보TV’에 등장한 ‘셀럽파이브’가 화제를 모으면서 기획자 송은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후배 김신영의 “뮤직비디오 한편 찍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발해 송은이의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일사천리 진행된 프로젝트그룹 ‘셀럽파이브’는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김영희, 안영미로 구성됐다. 여성 개그맨 5인방이다.

이들이 일본 고교댄스팀 TDC의 코믹한 군무를 패러디한 뮤직비디오가 150만 뷰를 넘어서고, 지난 17일에는 MBC뮤직과 MBC에브리원 ‘쇼챔피언’에 셀럽파이브가 출연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1980년대 복고풍, 촌스러운 화장으로 무장하고 나와 댄스에 집중하며 철저한 리싱크로 일관하는 셀럽파이브의 모습은 폭소를 유발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일회성으로 기획됐던 셀럽파이브가 터지면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 요청이 이어지는 상황. 그러나 다섯 개그우먼의 소속사가 다 다르고 스케줄이 다 달라서 출연 요청에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FNC는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지는데 스케줄이 다 달

라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나마 음악 프로그램만 몇군데 사전녹화를 통해 출연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계에서는 셀럽파이브를 통해 여성 예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FNC는 “한동안 여성 예능인을 안 쓰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다시 여성 예능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어세를 몰아 여성 예능인을 내세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다시 유행을 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셀럽파이브에 앞서 송은이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을 출연시켰다. 그중 거의 유일한 남성인 김생민이 제일 먼저 대박을 쳤지만, 사실은 여성 연예인들에게 판을 깔아주고자 하는 게 송은이의 목표였다.

◇ “송은이, 조력자 역할 즐겨...제작에 가장 주력”

송은이가 부상하면서 광고계도 주목한다.

FNC는 “원만한 업종에서 다 광고모델 문의가 들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게 몇건 있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SBS라디오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와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만 하고 있던 송은이는 최근 MBC TV ‘하하랜드’의 MC로 발탁됐고, 다음달에는 TV조선 새 예능에도 출연한다. 다시 ‘예능인 송은이’에 대한 방송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들뜬 별도 하지만 송은이는 여전히 제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FNC는 “송은이 자신이 조력자 역할을 즐긴다. 기획자로서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며 “여기저기서 송은이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토토가3-H.O.T.’ 전설의 귀환

“오래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17년만에 재결합...무한도전 설날특집 방영

‘1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 H.O.T의 토니안(40)이 MBC TV 개편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17년 만에 멤버 전원이 다시 뭉치는 심경을 밝혔다. 토니안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입을 연 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해요. 이날을 기다려주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8. 2. 15. 우리 다시 만나요”라고 쓰고 멤버들의 이름과 ‘다시 만나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날 H.O.T와 ‘토토가3’(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특집 무대를 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우리는 2014년 11월 ‘토토가’ 특집을 준비하면서 H.O.T 멤버들을 처음 만났고, 2015년 10월에는 ‘토토가2’ 특집 출연을 위한 논의를, 2016년 가을부터는 ‘토토가3’ 기획을 위한 논의를 멤버 전원과 진행했다”고 H.O.T 재결합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2016년은 1996년 데뷔한 H.O.T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기에 다섯 명이 무대에 함께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쉽게 풀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결국 무대에 서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그러다 최근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고, ‘오직 다섯 멤버와 팬들만을 생각하며 무대에 서자는 한마음으로 특집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H.O.T가 ‘시청자들의 추억여행’을 위해 열심히 안무연습을 하고 있으며, 제작진도 최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경기 중계로 방송 시간 변경과 결방이 예정돼 있다.

제작진은 “2월 17일과 24일 밤, 지금의 본방송 시간과 다른 편성 시간에 ‘무한도전’의 스폰서로 개념으로 설날특집 ‘토토가3-H.O.T.’ 편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40 UHD 한식의 마음(재)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월요기획 <올, 첨단기술을 만나다>(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이웃집 찰스(재)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원실계(재)
1	0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다큐 (3피리어드, 평창)(재) 50 평창 동계올림픽 G-100 특집다큐 (영웅, 국가대표)(재)	10 1대 100(재)	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평창 패럴림픽 G-100 특집 불꽃처럼 뜨겁게(재)	10 생활의 발견 (재)	15 프리파라 3 45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만 지도(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MBC네트워크특선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양코르 MBC 다큐프라임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영상앨범 산(재) 3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지역 뉴스
6	00 평창동계올림픽 G-10 특별생방송 하나된 열정 하나된 세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7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 자메이카)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9	00 KBS 뉴스 9 40 G-10 특집 다큐 <오케이 평창, 웰컴 대한민국>			
10	3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의문의 일승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해외결핵드라마 결핵선	10 철부지 브로망스 -질선상영중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5 KBS 걸작 다큐멘터리 <산호초의 선물, 라자암팻>	35 특선다큐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05 도올스톱 25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장수의 비밀(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9:50 극한직업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마즈	20:40 아이 오픈너(Eye-opener)
(자연의 색 서호주)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엄마 까투리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황태복음과 도라지무침)	16:15 두다다쿵	<여기가 천국 카리비 제도 2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푸른 낙원 신비한 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07:30 루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7:15 루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야생의 집을 짓다 2부
07:45 총동! 슈퍼웬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이모네는 투매산골
08:00 당동당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7:45 띠띠뽀 띠띠뽀	21:50 EBS 다큐프라임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난 물고기(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2:45 글로벌 아홉 님이 삼만리
09:00 몬카트	-화산섬의 비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잭	-화산섬의 비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9:30 EBS뉴스	24:30 다큐 시네마 (공부의 나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2월 14일 壬戌)

子	48년생 아무리 총격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60년생 어찌고 어찌나게 되어 있으니 마음을 비워라. 72년생 중요한 점을 관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29	午	42년생 무의미한 일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54년생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가벼운 정후가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78년생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90년생 빈틈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81, 52
丑	49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61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73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85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92, 32	未	43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된다. 55년생 현 상태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67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올 것이다. 79년생 고민할 수다. 91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50, 68
寅	50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74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이니 잘 활용하는데 있다. 86년생 진귀한 기회이니 수용하자. 행운의 숫자 : 25, 20	申	44년생 힘겨울 때라면 결과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56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68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느니라. 80년생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00, 15
卯	51년생 기묘한 상국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63년생 순간적으로 작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75년생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지수가 매우 높아진다. 87년생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1, 56	酉	45년생 실리 못지않게 관계도 중요한 벼이다. 57년생 굳이 지엽적인 부분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69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매우 중추적인 일이나 날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10
辰	52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64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76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니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88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답이 보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7, 70	戌	46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58년생 어렵게 이룬 성과일수록 값어치가 있으리라. 70년생 본보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3, 67
巳	53년생 대중 넘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65년생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89년생 조금만 유의하면 다면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67, 01	亥	47년생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동침하는 것이 이롭다. 59년생 두드러지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71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성취하리라. 83년생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든지 반대든지 간에 매한 가지이니라. 행운의 숫자 : 77,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